



# 시장 성숙기 진입... 수익성 양극화 뚜렷

DC기업들의 2005년 실적은 양극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일부 업체들은 자사의 실적에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큼 흡족한 성과를 올린 반면 또 다른 업체들은 생존 자체를 전전긍긍해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했다. 시장 전반적으로 포털업체들의 주도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게임업계는 지각변동이 감지되기도 했다. 업체간 편차가 늘어난 2005년 주요 DC업체들의 실적을 분석했다.

글 양기석 기자

**월**간 <디지털콘텐츠>가 코스닥과 거래소에 등록·상장된 DC기업 64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2005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들의 지난해 실적 총액은 2조2,24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포털업체들의 선전이 지속된 가운데 DC산업의 블루칩인 온라인게임업계는 업체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이를 수익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특정 업종의 강세가 주춤한 반면 동일 업종 내에서의 업체 간 편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초기시장에 머물렀던 DC산업이 개화기를 거치며 본격적인 성숙기에 들어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양극화 현상 '여전'

전체 조사대상 64개 업체 중 38개 업체들의 매출액이 증가했고 26개 업체들은 감소했다. 단순 매출액 증가율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DC기업들 간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조사대상 DC업체들의 실적을 세부항목별로 분석했을 때 단순 매출액 증가율에서는 인터넷스가 전년 동기 대비 303% 상승했고, 야호 107%, SNH 85%, KTH 73%, 한빛소프트 63%, NHN 56%, 어울림정보기술 46%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이어 미디어피아·메가스터디·지어소프트 등이 각각 45%, 41%, 39%의 매출 증가율을 나타냈다.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나타내는 경상이익·영업이익·당기순이익 증가율에서는 네오위즈·지어소프트·윈스테크넷·다날 등 각 분야별 대표적인 DC업체들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업종별 대표업체들이 고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 특징.

경상이익 증가율에서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네오위즈가 전년 동기 대비 265.9%가 증가한 것을 비롯 지어소프트가 242.6%, 소프트레웨어 184.7%, 윈스테크넷 134.1% 증가라는 괄목할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SNH·한글과컴퓨터·다날·iMBC·YBM시사닷컴·메가스터디 등이

'톱10'에 이름을 내걸었다.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는 KTF와 LGT 등이 동통신사에 대한 WIPI 라이선스 매출이 크게 오른 지어소프트가 전년 동기 대비 248.4%가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디지털웨이브를 인수하며 기존 망 사업뿐만 아니라 유무선 부가서비스 분야까지 아우르게 된 소프트레웨어가 전년 동기 대비 185.5% 성장했고, 윈스테크넷(170.1%)·SNH(145.5%)·네오위즈(143.2%) 등의 성장률도 높았다. 이밖에도 이미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NHN이 76.0%라는 높은 이익증가율을 기록해 코스닥 대장주다운 면모를 보여줬고, 이어 다날·YBM시사닷컴·씨디네트웍스 등도 선전했다.

경상이익·영업이익 상위 10권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대부분 당기순이익 증가율에서도 상위권을 형성했다. 특히 네오위즈는 415.3%라는 경이적인 증가율을 기록했고 지어소프트·소프트레웨어·윈스테크넷·SNH 등도 상승 폭이 컸다. 또한 YBM시사닷컴·한글과컴퓨터·iMBC·다날·메가스

영업이익 증가율 상위 10개사

(단위: 백만원, %)

	2005	증가율
지어소프트	2,768	248.4
소프트레웨어	1,122	185.5
윈스테크넷	1,778	170.1
SNH	14,119	145.5
네오위즈	17,638	143.2
NHN	131,472	76.0
다날	7,052	44.0
YBM시사닷컴	10,791	43.2
씨디네트웍스	7,319	37.7
iMBC	6,550	32.9

경상이익 증가율 상위 10개 사

(단위: 백만원, %)

	2005	증가율
네오위즈	10,666	265.9
지어소프트	1,404	242.6
소프트레웨어	1,276	184.7
윈스테크넷	1,711	134.1
SNH	7,350	104.6
한글과컴퓨터	5,054	75.9
다날	7,705	56.5
iMBC	7,446	51.8
YBM시사닷컴	11,491	39.2
메가스터디	28,864	37.7

당기순이익 증가율 상위 10개 사

(단위: 백만원, %)

	2005	증가율
네오위즈	7,931	415.3
지어소프트	1,198	175.7
소프트레웨어	1,012	151.8
윈스테크넷	1,417	135.7
SNH	7,316	126.2
YBM시사닷컴	10,085	74.3
한글과컴퓨터	6,466	70.3
iMBC	5,386	57.8
다날	6,032	50.4
메가스터디	20,990	41.4

영업이익률 상위 10개 사

(단위: %)

SNH	36.90
NHN	36.78
메가스터디	34.76
안철수연구소	33.87
CJ인터넷	31.43
엔씨소프트	30.94
iMBC	30.70
YBM시사닷컴	30.28
씨디네트웍스	29.14
디지털조선	25.36

터디 등도 '남는 장사' 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 상위 10위권 업체들은 대체로

30% 내외의 수익률을 올렸다. 레텍커뮤니케이션스와 위자드소프트웨어가 합병해 탄생된 SNH가 36.90%를 기록한 것을 포함, NHN(36.78%), 메가스터디(34.76%), 안철수연구소(33.87%), CJ인터넷(31.43%), 엔씨소프트(30.94%), iMBC(30.70%) 등도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 포털업계, 덩치는 커지고 체력은 떨어지고

지난해 포털업체들의 표면적인 성적표는 대체로 양호했다. NHN, KTH 등이 2004년 매출액 대비 50%가 넘는 '고공비행' 을 한 것을 비롯,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다음, 엠

파스 등도 총매출액 부문에서는 플러스 성장을 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재무 지표에서는 고전한 양상이 뚜렷했다. NHN은 높은 매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하락했고, KTH도 영업이익 등에서 적자규모가 축소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또 다음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에서 적자가 확대됐고, 엠파스는 총매출은 다소 올랐으나 경영 안정성은 여전히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적 개선을 위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것이 포털업계에는 큰 위안거리. 이미 지난해 동영상 검색 서비스라는 새로운 장르가 등장해 기존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 검색에 이어 새로운 사업모델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 서비스 역시 포털업계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특히 올해에는 2006 독일월드컵 특수를 예상하고 있어 월드컵 성적에 따라서 전체 포털업계의 실적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포털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NHN은 지난해 검색광고로 1,732억원을 벌어들이며 전년 대비 102.5% 성장했고, 게임 부문도 고스톱, 바둑 등 웹 보드 게임의 선전에 힘입어 전년 대비 5.8% 성장한 92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더욱이 전반적인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힘입어 배너광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상승을 주도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 다만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가 2004년에 비해 악화된 것이 '옥에 티' 였다.

다음은 지난해 2,02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385억원으로 8.2% 상승했지만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부문에서는 적자가 확대됐다. 이는 주요 수익원인 배너광고의 부진과 자회사인 다음다이렉트보험과 라이코스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 이에 다음은 최근 들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옛 대장주의 면모를 보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성과가 가시화되는 올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지난해 1,06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3%라는 기록적인 매출 증가율을 보인 KTH는 총매출 상승에 힘입어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 등에서 적자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경영구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KTH는 지난해 3분기에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한데 이어 4분기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흑자를 실현한 바 있어 올해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엠파스 역시 지난해 매출 32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했으나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 등에서는 적자가 확대됐다. 이는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와 대규모 마케팅 비용에 따른 것으로 검색광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올 상반기에는 흑자전환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대표적 모바일 업체인 다날도 '사상 최대 실적' 클럽에 가입했다. 다날은 지난해 535억원의 총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한 것을 포함, 영업이익 70억원, 경상이익 77억원, 당기순이익 60억원을 기록하며 2004년 대비 각각 44.0%, 56.5%, 50.4%가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조사대상 매출총액 상위 10권 업체 중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가장 안정적인 경영구조를 갖춘 것. 이러한 실적 향상은 휴대전화 결제 분야가 큰 상승세를 탔고 모바일 및 콘텐츠 분야 매출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 다날은 올해에도 여세를 몰아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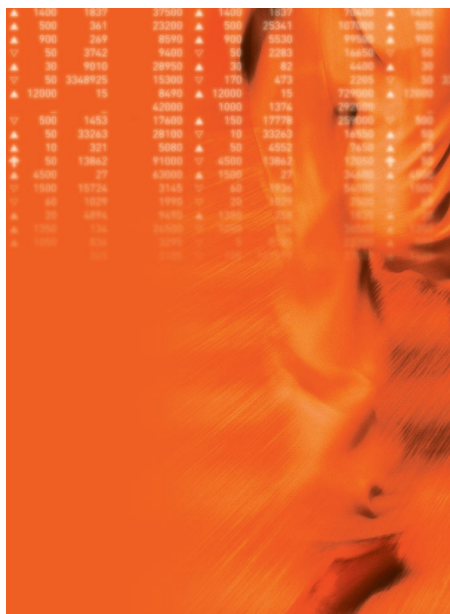
이에 반해 모빌리언스는 지난해 30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하는데 그쳤는데 서비스 수수료율 하락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40.5%, 경상이익 34.6%, 당기순이익은 34.9%가 각각 하락했다.

### '뛰는' 엔씨소프트 위에 '나는' 네오위즈

온라인게임 업계에도 업체 간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게임 선두주자인 엔씨소프트는 당초 예상했던 매출실적에 못 미치는 2,328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3,000억원 시대'를 올해 이후로 미뤄야했다. 특히 매출 총액은

2004년에 비해 6% 가까이 감소한 2328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3.9%가 감소한 720억원, 경상이익은 16.2% 감소한 815억원을 기록하는 등 주요 경영 지표가 나빠졌다. 이러한 실적 하락은 <리니지>와 <리니지Ⅱ>의 매출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게임 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된 것도 실적 하락을 부채질했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들어 유럽시장 정착률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길드워>와 <시티 오브 히어로>의 선전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명의 도용 사태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는 것이 고민거리다.

온라인게임 분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주



역인 액토즈소프트와 웹젠도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 29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 등도 크게 감소했다. 웹젠도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290억원의 매출 성과를 올리는데 그쳤다. 더욱이 웹젠은 주요 경영지표가 대부분 적자로 돌아서 새로운 모멘텀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오위즈는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한 1,02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도 각각 143.2%, 265.9%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415.3% 성장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성과는 게임사업부문 중 퍼방 웹 보드게임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스페셜포스를 필두로 한 퍼블리싱 사업의 성과가 주효했기 때문. 네오위즈는 올해에도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사업을 병행해 지난해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전략이다.

한빛소프트의 선전도 눈길을 끌었다. 한빛소프트는 지난해 496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대비 63% 성장하는 저력을 보였다. 더욱이 단순한 매출 증가보다도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모두 흑자로 돌아선 것이 특징. 한빛소프트의 실적 개선은 온라인게임과 해외사업부문의 성장세에 따른 것인데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팡야>, <위드>, <탄트라> 등의 온라인게임부문은 작년 한 해 꾸준한 실적을 기록, 전년 대비 127.8% 상승하며 성장세를 주도했다. 특히 해외온라인게임 부문의 매출도 전년 대비 112억원을 기록하며 626.5%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실적이 향상됐다.

한편, 게임 퍼블리싱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CJ인터넷은 2004년에 비해 40% 하락한 845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데 그쳤지만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돼 내실 위주의 경영전략을 펼친 것으로 분석됐다.

### e러닝업계, 전반적 실적 개선

기업들의 직능교육 수단에 그쳤던 e러닝이 교육사업 전반에 확대되면서 e러닝업체들은 대체로 수익성이 향상됐다. 특히 메가스터디, YBM시사닷컴 등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e러닝 시장의 가능성을 보였다.

e러닝 분야의 선두주자인 메가스터디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7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e러닝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 등도 2004년 대비 각각 25%, 37.7%, 41.4% 증가하며 내실 강화에도 성공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온라인 강의 확대와 오프라인 학원 시장 진입 등의 호재가 실적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21억원의 매출을 올린 에듀박스도 영업이익, 경상이익은 감소했으나 당기순이

주요 DC기업 2005년 실적

종목명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2005	증감률	2005	증감률	2005	증감률	2005	증감률		2005	2005
NHN	357,494	56	131,472	76.0	51,717	-17.7	9,108	-83.1	36.78	60.91	32.33
엔씨소프트	232,804	-5.71	72,021	-33.90	81,562	-16.24	66,678	-10.00	30.94	7.17	-4.77
다음	202,501	10	38,573	8.2	-21,880	적자확대	-33,843	적자확대	19.05	341.54	154.20
KTH	106,114	73	-7,039	적자축소	-6,583	적자축소	-6,583	적자축소	-6.63	16.79	4.33
네오위즈	102,158	32	17,638	143.2	10,666	265.9	7,931	415.3	17.27	47.33	30.59
CJ인터넷	84,543	-40	26,571	-20.9	25,741	흑자전환	18,156	흑자전환	31.43	12.92	3.97
메가스터디	71,043	41	24,696	25.0	28,864	37.7	20,990	41.4	34.76	16.25	3.25
다날	53,558	25	7,052	44.0	7,705	56.5	6,032	50.4	13.17	35.18	9.51
한빛소프트	49,672	63	2,867	흑자전환	2,590	흑자전환	2,590	흑자전환	5.77	17.31	0.25
손오공	47,336	-12	-9,917	적자전환	-7,465	적자전환	-6,734	적자전환	-20.95	49.10	-18.70
에듀박스	42,185	16	1,281	-22.6	1,184	-27.0	2,068	27.4	3.04	38.87	10.42
안철수연구소	40,159	27	13,601	32.6	16,655	27.9	12,736	20.1	33.87	27.00	7.89
SNH	38,263	85	14,119	145.5	7,350	104.6	7,316	126.2	36.90	26.73	-31.74
한글과컴퓨터	36,028	11	5,403	-33.1	5,054	75.9	6,466	70.3	15.00	14.45	4.26
YBM시사닷컴	35,637	21	10,791	43.2	11,491	39.2	10,085	74.3	30.28	12.37	0.30
엠펙스	32,945	5	-7,015	적자확대	-12,297	적자확대	-12,297	적자확대	-21.29	21.85	11.20
모빌리언스	30,179	4	2,761	-40.5	3,188	-34.6	2,875	-34.9	9.15	85.12	26.50
엑토스소프트	29,168	-26	2,118	-75.0	618	-94.9	1,257	-86.2	7.26	13.07	-0.63
웹젠	29,015	-45	-18,003	적자전환	-16,444	적자전환	-13,205	적자전환	-62.05	7.11	1.65
이루넷	27,792	-5	4,044	-11.2	4,536	-26.9	3,243	-27.1	14.55	15.19	-1.03
디지털조선	25,840	-6	6,553	8.0	5,860	28.5	4,464	30.3	25.36	16.40	-30.75
SBSi	25,374	14	3,399	13.5	2,628	-49.5	1,782	-56.8	13.40	21.62	-4.61
씨디네트웍스	25,116	34	7,319	37.7	6,864	33.5	5,824	31.7	29.14	15.71	-32.34
대원씨앤에이	24,429	-4	-1,325	적자전환	-13,865	적자확대	-13,931	적자확대	-5.42	36.19	9.42
선도소프트	24,368	5	976	-47.5	978	-49.8	962	-41.4	4.00	85.14	-22.68
퓨처시스템	23,977	-13	-4,370	적자전환	-12,907	적자확대	-14,301	적자확대	-18.23	29.20	13.00
능률교육	23,407	4	3,509	-20.4	4,362	-10.2	3,209	-8.9	14.99	48.26	-2.36
iMBC	21,334	15	6,550	32.9	7,446	51.8	5,386	57.8	30.70	11.60	-9.89
지어소프트	21,133	39	2,768	248.4	1,404	242.6	1,198	175.7	13.10	50.03	37.07
어울림정보	20,636	46	965	흑자전환	808	흑자전환	808	흑자전환	4.68	58.55	-138.47
디지털대성	18,657	8	2,636	22.7	3,258	19.4	2,401	22.8	14.13	17.97	-2.01
필링크	18,107	3	-397	적자전환	-249	적자전환	-115	적자전환	-2.19	25.51	3.25

익은 27.4%가 증가했으며, 'MOUS' 테스트 부문과 콘텐츠 매출 부문의 실적이 개선된 YBM시사닷컴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35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영업이익은 43.2% 증가한 107억원, 경상이익은 39.2% 증가한 115억원을 기록했고 순이익도 78.3%가 증가, 100억원을 돌파했다. 디지털대성도 전년 대비 8% 증가한 18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가운데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의 지표도 각각 22.7%, 19.4%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상태가 안정화됐다.

반면 지난해 277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루넷은 매출은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지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적게는 10%에서 많게

는 30%에 이르는 실적 하락을 경험해야 했고, 23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능률교육도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이 각각 20.4, 10.2% 감소했다.

**날개 단 안연구소 상승세의 끝은 어디에**

2000년 대 코스닥시장의 테마주로서 상승세를 주도했던 보안업체는 안철수연구소의 초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상위 업체간 실적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란 수식어는 안철수연구소에도 해당됐다. 지난해 4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안연구소는 영업이익 136억원을 기록하며 32.6% 성장하는 저력을 보였고, 경

상이익은 27.9% 증가한 166억원, 당기순이익도 20.1% 증가한 127억원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호성적은 안티스파이웨어 부문의 지속적 성장과 온라인 보안 서비스사업의 상승세에 따른 것.

또한 침입방지시스템(IPS) 분야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윈스텍넷도 지난해 12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2004년 대비 34% 증가한 가운데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에서는 100% 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내실경영과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펼친 인젠도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또 소프트포럼은 매출이 24% 감소한 127억원에 머물렀지만 영업이익 등은 흑자로

(단위 : 백만원, %, %P)

종목명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2005	증감률	2005	증감률	2005	증감률	2005	증감률		2005	2005
소프텔레웨어	17,995	14	1,122	185.5	1,276	184.7	1,012	151.8	6.24	46.84	6.74
이오리스	16,974	8	-970	적자전환	-11,238	적자전환	-11,142	적자전환	-5.71	197.61	164.95
메디오피아	16,421	45	-1,784	적자확대	-2,777	적자확대	-15,299	적자확대	-10.86	1,761.14	1,682.95
인프라밸리	16,096	-49	750	-88.6	1,615	-75.7	1,616	-75.3	4.66	12.59	-21.53
모코코	15,062	-14	-2,541	적자전환	-2,970	적자전환	-2,571	적자전환	-16.87	105.84	54.04
씨니YNK	14,621	-51	-3,281	적자전환	-12,331	적자전환	-14,332	적자전환	-22.44	135.36	97.07
위트콤	14,383	16	1,853	-33.5	2,591	-27.5	2,176	-26.5	12.88	18.12	3.03
인젠	14,186	2	528	-6.2	208	흑자전환	208	흑자전환	3.72	57.50	0.67
야호	13,178	107	-1,730	적자확대	-1,503	적자확대	-1,803	적자확대	-13.13	23.26	8.83
디지털온넷	13,118	-8	-185	적자축소	4,343	흑자전환	3,512	흑자전환	-1.41	34.73	-16.22
넷시큐어테크	13,090	-27	-2,248	적자확대	-3,019	적자축소	-3,019	적자축소	-17.18	45.66	-135.16
신지소프트	13,078	13	1,532	-54.8	1,179	-68.2	1,131	-66.2	11.71	5.24	2.47
소프트포럼	12,706	-24	580	흑자전환	292	흑자전환	292	흑자전환	4.56	38.95	6.61
윈스테크넷	12,304	34	1,778	170.1	1,711	134.1	1,417	135.7	14.45	28.61	5.97
블루코드	10,445	15	-533	적자전환	-9,746	적자전환	-9,746	적자전환	-5.10	602.49	555.42
유진데이터	9,391	-26	-2,376	적자확대	-2,183	적자확대	-2,183	적자확대	-25.30	27.67	-63.40
옵니텔	8,178	7	-339	적자축소	-1,279	적자축소	-1,229	적자축소	-4.15	78.79	55.79
사이버택	7,749	-11	-3,613	적자축소	-6,766	적자축소	-6,766	적자축소	-46.62	58.98	24.67
위즈정보기술	7,320	-40	-1,461	적자축소	41	-90.1	41	-88.3	-19.96	17.30	-6.98
소프트맥스	6,337	14	1,606	흑자전환	2,592	흑자전환	2,279	흑자전환	25.35	2.10	-5.99
시스윌	5,772	-77	-9,576	적자확대	-13,148	적자축소	-13,148	적자축소	-165.91	58.15	-199.57
이모션	5,737	-7	-1,688	적자전환	-3,296	적자전환	-3,011	적자전환	-29.42	320.94	218.80
세중나모	5,168	-12	-3,518	적자축소	-3,921	적자축소	-3,921	적자축소	-68.07	26.12	17.87
바추엘텍	4,783	17	-1,506	적자축소	-1,665	적자축소	-1,665	적자축소	-31.48	5.01	1.18
3SOFT	4,011	-32	-2,125	적자전환	-2,192	적자전환	-2,192	적자전환	-53.00	48.88	12.58
장미디어	3,841	16	-2,884	적자확대	-2,430	적자축소	-2,430	적자축소	-75.07	7.53	-51.16
나코	3,821	-26	588	흑자전환	-2,038	적자확대	-2,038	적자확대	15.39	34.91	-29.68
이네트	3,692	-39	-2,645	적자확대	-7,954	적자확대	-7,954	적자확대	-71.65	6.45	-26.39
실미디어	3,609	8	-1,748	적자확대	-2,355	적자전환	-2,294	적자전환	-48.43	48.47	19.24
시큐어소프트	3,570	-51	-3,809	적자축소	-3,967	적자축소	-3,967	적자축소	-106.70	3.20	-78.75
인투스	3,569	303	-841	적자확대	-307	적자축소	-307	적자축소	-23.57	28.66	-79.08
엔틱스소프트	3,297	-1	-6,464	적자확대	-10,880	적자확대	-10,880	적자확대	-196.05	97.34	88.01

전환돼 올해 비상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반면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한 23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퓨처시스템은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고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적자가 확대됐다.

‘방화벽 전성시대’를 열었던 제1세대 보안 업체들인 시큐어소프트, 어울림정보기술 등의 희비도 엇갈렸다. 어울림정보기술이 2004년 대비 46% 성장한 20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채도약의 기틀을 다진 반면 시큐어소프트는 3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치며 적자가 축소되는데 머물렀다.

이밖에 경영권 분쟁을 거친 대표적 토종기업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한글과컴퓨터와 세

중나모의 엇갈린 행보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36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코스닥 등록 이후 최대 매출실적을 기록한 한글과컴퓨터는 영업이익이 33.1% 하락한 54억원에 그쳤으나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75.9%, 70.3%가 상승하며 옛 위용을 되찾았다. 반면, 2004년 대비 12% 하락한 51억원의 매출을 올린 세중나모는 적자가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경영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한편 디지털조선은 전년 대비 6% 하락한 258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으나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은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디지털조선

은 지난해 11월 무차입 경영을 선언한 바 있어 올해에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방송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iMBC, SBSi 등도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 SBSi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25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iMBC도 전년 대비 15% 가까이 상승한 21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iMBC는 영업이익 등에서도 2004년 대비 30% 가까이 성장해 내실 있는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올해 들어 DMB, 와이브로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